

여대생의 모발미용 관리 및 행태에 관한 연구

김 리 라[†] · 김 주 덕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An Investigation on the Cosmetic Haircare Behavior of Women College Students

Li-La Kim[†] and Ju-Duck Kim

Graduate School Distance Learning Department of Cosmetic & Beau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53-12,
Cheongpa-dong 2ga, Yongsan-ku, Seoul 140-742, Korea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발미용 관리 및 그 행태와 여대생의 모발 화장품 선호도 및 선호브랜드 분석을 통해 미용산업 발전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여대생들의 모발 미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이해수준 및 관심도에 있어 현재 '염색도, 탈색도' 형태가 49.1%로 가장 많았고, '퍼머넌트도'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모발 미용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직접 시도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미용실에서 행하는 모발 염색, 탈색, 퍼머넌트 등을 통한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관리에 대한 행태에 있어서는 여러 미용기술 가운데 먼저 퍼머넌트 후 불만족이나 부작용을 경험한 내용에 있어, 불만족이나 부작용 유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74.7%에 이른다. 응답자들이 경험한 불만족의 내용은 '모발손상'이 42.4%로 가장 많고 '스타일 불만족'이 19.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본 연구 결과로 여대생들은 모발미용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모발미용 관리와 관련한 지식에서 충분한 정보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다양화 되어가는 미적 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세분화된 모발화장품과 정확한 모발 관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모발미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요구되어진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get the basic data for the domestic cosmetic industry, through analyzing female college students' responses to cosmetic care of hair and their behavior, and their preference for hair cosmetics and brands. In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and concern of hair cosmetic care, as well as their general knowledge, 'dyed or decolorized hair' types had the highest response rate at 49%, followed by 'permanent wave' type at 39%. Thus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hairdressing-related operations, and even they made an attempt to do it directly. In the ways and management for dealing with harmful side effects caused by dyeing, decolorizing, or permanent, 74.7%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adverse effects, as well as having complaints, after permanent wave. Of the complaints 245 students experienced, 'hair damage' was the highest rate of 42.4%, followed by 'unsatisfied with hair style' at 19.8%. From the above results, female college students showed a various interest in hair cosmetic care; however, they had little knowledge in this regar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m for the segmentation of hair cosmetics and the appropriate hair care, to meet their diversified cosmetic needs which becomes diversified, and to offer them the correct information of hair beauty.

Keywords: hair cosmetic care, female college students, hairdressing-related operations, hair beauty

1. 서 론

생활수준과 소득의 향상으로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연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헤어스타일 즉, 모발미용은 외모에서 의상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미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모발을 통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모발은 개인적인 장식 기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에 따라 개인의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데 있어 모발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미의 개념이 모든 여성에게 일반화 되어감에 따라 신체의 내적인 건강뿐 아니라 외적인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강해지면서 예전에는 머리카락을 묶는 다거나 자르는 것에 국한하였으나 차츰 다양한 경로를

[†] 주 저자 (e-mail: dori94@hanmail.net)

통한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최근 여성들의 미용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모발의 미적인 측면에 앞서 모발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보다 모발의 건강유지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관심에 비해 선행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모발 관리에 대해 현실적인 미용지식과 인식, 태도에 있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여대생은 모발관리를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기술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건강한 생활습관과 모발건강관리에 있어 잘못된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여대생들이 모발에 대해서 피부와는 다르게 취급하여 피부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모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 이는 대다수가 모발미용을 단순히 보기 좋게 하는 미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때문이다[3]. 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은 퍼머넌트 웨이브, 염색, 탈색 등과 같은 모발유행 패턴에 따라 다양한 염색·탈색이 급증하면서 모발의 물리적, 화학적 빈도가 많아짐으로서 모발손상과 두피질환이 많이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모발에는 신경이 없는 점에서 손상되어도 통증을 느낄 수 없어 모발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다[4]. 따라서 모발의 미적인 측면에 앞서 두피와 모발 손상 방지를 위한 모발 건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여대생의 모발·두피 건강에 대해, 각 개인의 인지된 정보에 따라 모발 관리수준과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 소재 미용계열 2년제 여대생과 미용계열이 아닌 4년제 여대생을 대상으로 모발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모발관리 형태, 염모제 사용제품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맞는 올바른 모발관리 습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대생의 모발화장품 선호도 및 선호브랜드 분석을 통해 미용산업 발전의 기초자료 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첫째, 여대생들의 모발 미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이해수준 및 관심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모발 화장품의 성향을 알아본다.

셋째, 모발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와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넷째, 여대생이 선호하는 샴푸, 염모제의 브랜드와 그 만족도를 알아본다.

다섯째, 미용실에서 행하는 모발 염색, 탈색, 퍼머넌트 등을 통한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관리에 대한 행태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3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의 선정된 서울, 경기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미용계열학과 여대생 130명과 미용계열이 아닌 4년제 여대생 2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되었다. 배포한 설문지 총 350부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28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했다.

2.2.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여성의 모발미용 행태연구”와 “여성의 피부미용 관리지식 및 행태연구”의 도구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도구를 미용관련학과 학생 10명에게 예비설문을 한 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1,5]. 도구 구성은 일반적 특성은 10문항, 모발 상태 및 미용실태 11문항, 개인의 모발염모에 대한 인식 16문항, 모발 화장품에 대한 인식 10문항, 모발관리와 고민에 관한 인식 8문항으로 총 5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 구성에 대한 pre-test에서 신뢰도(Reliability)검사에서서는 각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개인의 모발염모에 대한 인식” 16문항은 0.6058, “모발 화장품에 대한 인식” 10문항은 0.695, “모발 관리와 고민에 관한 인식” 8문항은 0.770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모발염모에 대한 인식 태도와 모발 특성 관리형태에 대한 인식 및 퍼머, 염색, 코팅 등의 시술행태와 모발에 대한 고민 등을 일반적 특성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모발관리 형태를 밝히는 것으로 하였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측정된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은 SPSS V11.0 Package Program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의 측정도구 내용이 연구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Reliability)검사를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모발 관리 형태에 따른 개인의 모발염모에 대한 생각, 태도, 개인이 느끼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미용계열 2년제 전공학생과 일반 대학 4년제 전공학생 간 교차 분석을 통한 차이 비교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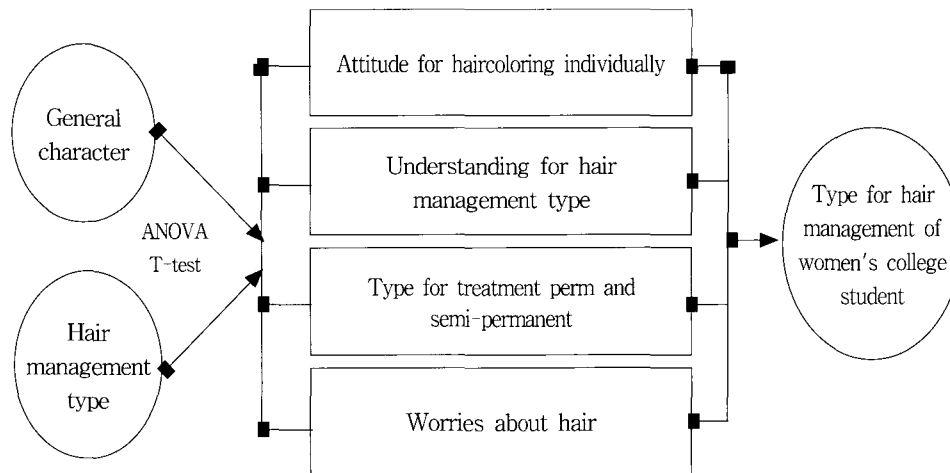


Figure 1. Model of study.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4%가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이고 나머지 36%는 2년제 미용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대상은 1학년 학생으로 42.7%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4학년(29%), 2학년(17.7%), 3학년(10.7%)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여대생들의 한달 용돈의 평균은 3.10으로 20~30만원 가량의 용돈을 받는 여대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고등학교 출신지역은 서울 특별시가 5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중소도시 및 광역시 출신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개인적인 신체적 특징에 해당하는 키와 몸무게를 묻는 질문에 있어 키는 평균 2.99로 160~164cm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40.5%로 가장 많았다. 본인 스스로 느끼는 몸의 비만정도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9%가 본인의 몸이 '보통' 정도의 체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도 및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조사에 있어, 먼저 만족도는 평균 2.92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보통'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평균 3.84로 '다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모발 및 미용실 이용 실태

응답자들의 현재 모발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모발의 형태는 '염색

모, 탈색모' 형태로 응답자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퍼머넌트모'가 39%로 여대생들이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모발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미용계열학과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현재 모발상태를 집단간 비교(독립표본 T 검증방법)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Table 1을 보면 2년제 미용계열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과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의 모발상태에 대한 집단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퍼머넌트모는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보다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보다 더 많이 시술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염색, 탈색모는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보다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미용실 이용 실태에 따른 집단간 비교를 2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과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의 미용실 이용 실태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퍼머넌트 시술 횟수'와 '퍼머넌트 시술 이유'에 있어 집단 간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보다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퍼머넌트의 시술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퍼머넌트 시술 이유에 있어 2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보다 '기분전환'을 더 목적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흔하게 행하는 시술형태인 퍼머넌트 후 경험하였던 불만족이나 부작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퍼머넌트 후 불만족이나 부작용 경험 여부의 평균은 1.34이다. 보다 자세하게 불만족이나 부작용을 경험한 빈

Table 1. Condition of Hair - typical Comparison in School

Fluent		Average	Variance	T-value	Intention level
Type of hair	Type of school				
Virgin hair	2 years college	1.85	.36	1.650	.100
	4 years college	1.77	.42		
Permed hair	2 years college	1.74	.44	3.608	.000***
	4 years college	1.54	.50		
Hair colored, bleached hair	2 years college	1.33	.47	-5.020	.000***
	4 years college	1.61	.49		
Semi-permanent hair	2 years college	1.93	.25	1.481	.139
	4 years college	1.88	.32		

Table 2. Group Comparison on Realities for Use Hair Shop

Fluent		Average	Variance	T-value	Intention level
Type of hair	Type of school				
Frequency of hair cut	2 years college	2.59	.73	.033	.973
	4 years college	2.59	.68		
Frequency of permanent	2 years college	2.08	.62	-2.086	.038*
	4 years college	2.23	.67		
Time to get permanent at first	2 years college	2.69	1.79	-.356	.722
	4 years college	2.76	1.61		
Reason for doing permanent	2 years college	2.43	1.46	2.247	.025*
	4 years college	2.14	.91		
Most used hair perform	2 years college	1.70	1.16	-.678	.499
	4 years college	1.80	1.20		

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나 부작용 유경험자가 전체 응답자의 74.7%에 이른다. 선행 연구에서는 퍼머먼트 후 부작용 경험자가 42.8%, 미경험자가 57.2%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작용 경험자가 74.7%로 상당히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6]. 그것은 본 연구에서 스타일에 대한 불만족도 포함시켜 그 비율의 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이 경험한 불만족의 내용은 '모발손상'이 42.4%로 가장 많고 '스타일 불만족'이 19.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모발 및 두피 손상, 스타일 불만족 등의 부작용에 대해 미용실에 클레임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은 8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3.1%만이 시술의 부작용이나 불만을 미용실에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불만족을 경험했지만 불만족을 표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불만족 제시에 대해 '재시술 요구'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22.4%로 가장 많았고 아예 '직접 트리트먼트 관리'를 하며 본인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형태도 18.3%에 이르렀다.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하는 조치는 1.2%로 거의 해당하는 이가 적었다.

3.3. 염색과 염모제 사용 실태

전체 응답자 중 79.8%는 1년에 최소 1번 이상은 염색을 하고 있는 반면, 19.8%는 염색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영미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의 74%가 현재 염색, 탈색을 하고 있었으며[3], 김은숙의 연구에서는 미용학원 여자 수강생들의 59.3%가 염색 경험이 있었다[7]. 본 연구에서는 염색 경험자가 79.8%로 해를 거듭할수록 20대 초반의 여대생들의 염색이 점점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염색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응답자들이 염색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는 '미용실'로, 응답자의 46.5%에 해당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집과 미용실 모두'에서 시술하는 사람이 43.2%에 달한다.

염색 및 탈색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약 10%에 해당 되는 '집에서 시술을 하는 사람' 중 54.5%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시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사용설명서를 이해하지 않고 염색을 시도하는

Table 3. Reaction After Permanent

(N=245)

Fluent	Classification	Frequency	(%)	Average	Variance
Whether or not of reaction after permanent	yes	245	74.7	1.34	.88
	no	83	25.3		
Detail for reaction	damaged hair	139	56.7	3.65	3.23
	damaged scalp	21	8.5		
	dissatisfaction for style	65	26.5		
	thickness of wave	17	6.9		
	etc	3	10.1		
Whether or not reaction to hair shop	yes	81	33.1	1.52	.51
	no	164	66.9		
Management after reaction	treatment from a doctor	3	1.2	7.00	2.51
	professional hair shop	7	2.8		
	direct treatment	45	18.3		
	request for refund	6	2.4		
	request for redoing	55	22.4		
	clinic management for hair treatment	18	7.3		
	etc	4	1.6		
	no response	107	43.6		

Table 4. Haircoloring (bleach)

Fluent	Classification	Frequency	(%)	Average	Variance
Frequency for hair coloring (bleach)	no	65	19.8	2.05	.77
	1~2 times	189	57.6		
	3~6 times	71	21.6		
	6~12 times	2	.6		
	no response	1	.32		
Place for hair coloring (bleach)	at home	27	10.3	3.60	2.68
	at hair shop	122	46.5		
	home, hair shop	113	43.2		
Whether or not understanding of manufacturing direction at home	yes	143	54.5	4.27	3.78
	no	58	22.1		
	no response	61	23.4		
Whether or not to given patch test before haircoloring (bleach)	never	226	86.2	2.91	3.28
	sometimes do	19	7.2		
	do	4	1.6		
	very often	5	1.9		
	always do	2	.9		
	no response	6	2.2		

이도 22%에 달하고 있다. 염색을 시술받기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고 염색을 하는 여대생은 ‘가끔한다’ 까지 포함해 전체 응답자의 11.6% 밖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다. 패치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여대생은 86.2%로, 이는 광형심의 연구에서 87.5%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1]. 5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패치테스트에 대한 지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색(탈색)의 경험은 증가했지만 기본적인 이해 및 지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 간 집단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2년제 학생과 4년제 학생 간 염색횟수를 비교해 보면 유의수준 $P < .001$ 에서 2년제 학생이 4년제 학생보다 염색의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문항의 조사 결과와도 같음을 알 수 있다. 염색을 실시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고 실시하는지에 있어 4년제 대학생이 2년제 학생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염색 기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4년제 학생은 2년제 학생에 비해 훨씬 더 사전 패치테스트를

Table 5. Comparison on Haircoloring Realities and Understanding

Fluent		Average	Variance	T-value	Intention level
Type of hair	Type of school				
Frequency of haircolouring or hair bleach	2 years college	2.28	.57	4.581	.000***
	4 years college	1.92	.83		
Whether or not understanding of manufacturing direction	2 years college	2.35	2.68	-7.482	.000***
	4 years college	5.36	3.88		
Whether or not given patch test	2 years college	1.64	2.02	-5.493	.000***
	4 years college	3.62	3.63		

Table 6. Realities of Using Haircoloring

Fluent	Classification	Frequency	(%)	Average	Variance
A purchase place	supermarket, mart	33	12.5	5.55	2.69
	drugstore	8	3		
	beauty supply	38	14.5		
	hair shop	15	5.7		
	cosmetic shop	123	46.9		
	etc	5	2.9		
	no response	40	15.2		
Consideration at the time of purchase (repetition response)	color	95	36.2	-	-
	price	13	4.9		
	quality	79	30.1		
	brand	59	22.5		
	packing & ad	2	.7		
	fragrance(whether smell or not)	4	1.5		
Desire haircoloring color field	brown	160	48.8	3.80	3.18
	purple	5	1.5		
	red	5	1.5		
	orange	36	11.		
	yellow	15	4.6		
	black	40	12.2		
	green	1	.3		
	white	-	-		
	blue	65	19.8		
	etc	1	.3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염색은 2년제 미용학파에 재학중인 학생이 일반학파에 재학중인 학생보다 더 자주 시술하나, 시술에 앞서 사용설명서를 철저히 읽거나 패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이해 및 준비는 오히려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용학파에 재학중이므로 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은 염모제의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겉과 미용실 등을 통해 시술하는 염모제는 응답자의 46.9%가 ‘화장품 코너’를 통해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을 구입하는데 있어 구매자인 여대생들은 ‘색

상(36.2%)’, ‘품질(30.1%)’, ‘브랜드(22.5%)’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염모제의 색상계열은 가장 무난한 ‘브라운계’가 48.8%로 다른 색상계열에 비해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염색의 색상이 튀지 않으면서 무난한 브라운 계열이 가장 선호됨에서 여대생들의 보수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그 외 ‘블루계’ 19.8%, ‘블랙계’ 12.2%가 선호되고 있으며 나머지 색상계열은 거의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갈색 57.2%, 황금색 10.8%, 검은색 8.9%, 파란색 0.9%로, 본 연구에서 브라운계를 가장 선호

Table 7. Brand Satisfaction for a Hairdye

Fluent	Classification	2 Years college		4 Years college		
		Frequency	(%)	Frequency	(%)	
Brand for a hairdye (repetition response)	M	16	13.2	15	11	
	F	16	13.2	15	11	
	L	48	39.6	75	55.1	
	W	41	33.8	24	17.7	
	V	0	0	1	1	
	S	1	0.05	0	0	
	7A	1	0.05	1	1	
	G	1	0.05	1	1	
	etc	1	0.05	3	2.2	
	total	121	100	136	100	
Brand satisfaction for a hairdye (repetition response)	Brand satisfaction for 2 years college student					
	Classification	Very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M			9(7.4)	6(4.9)	1
	F			16(13.2)		
	L			24(19.8)	23(19)	1(0.8)
	W		1	22(18.1)	17(14)	1(0.8)
	V					
	S				1	
	7A				1	
	G				1(0.8)	
	etc				1(0.8)	
	Brand satisfaction for 4 years college student					
	Classification	Very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M			7(5.1)	8(5.8)	
	F			14(10.2)	1(0.8)	
	L			57(41.9)	22(16.1)	1(0.7)
	W			15(11)	8(5.8)	1(0.7)
	V			1(0.7)		
	S					
	7A			1(0.7)		
G				1(0.7)		
etc			2(1.4)	1(0.7)		

하는 것과는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블루계 19.8%, 블랙계 12.2%로 높은 이유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20대 초반의 여대생이므로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8].

다양한 종류의 염모제 브랜드 중 선호하는 브랜드를 묻는 질문에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2년제 학생은 총 121명이 응답하였고 4년제 학생은 136명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에서와 같이 2년제 학생의 경우 39.6%가 'L' 제품을, 33.8%가 'W'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M'과 'F'가 각각 13.2%로 나타났다. 4년제 학생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55.1%가 'L'을 선호하였고 그 뒤를 이어 'W'를 17.7%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4년제 학생의 경우 뚜렷하게 선호하는 염색제가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그러나 2년제와 4년제 여대생 모두가 통틀어 'L' 제품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염모제 브랜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2년제 학생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선호하는 제품으로 나타났던 'L'의 경우 응답자의 19.8%가 제품에 대해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W'의 경우도 응답자 중 18.1%가 '보통' 정도로 제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학생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제품인 'L'에 대해 41.9%가, 'W' 제품에 대해서는 11%가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 모두에게 있어 선호되는 대표적인 염모제인 'L'과 'W'에 대해 대체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Table 8. Hairdying

Fluent	Classification	Frequency	(%)	Average	Variance
Time to get haircoloring at first	before elementary school	4	1.7	5.03	2.11
	elementary school student	10	3.7		
	middle school student	57	21.4		
	high school student	77	28.9		
	college student	118	44.3		
Reason for doing haircoloring	look milder	33	12.4	4.46	2.46
	for follow trend	7	2.6		
	for relaxation	97	36.6		
	look better neat	84	31.6		
	look better hair style	41	15.4		
	etc	3	1.3		

Table 9. Reaction After Haircoloring and Bleached Hair

Fluent	Classification	Frequency	(%)	Average	Variance
Whether or not of reaction after haircoloring and bleached hair	yes	170	64.1	2.81	3.03
	no	95	35.9		
Detail for reaction	damaged hair	102	56.3	5.27	3.56
	damaged scalp	13	7.1		
	skin irritation	4	2.2		
	dissatisfaction for haircolor	47	25.9		
	uneven haircolor	13	7.1		
	etc	2	1.4		
Management after reaction	treatment from a doctor	1	.5	6.31	2.80
	professional hair shop	9	5.1		
	direct treatment	108	62.0		
	request for refund	2	1.1		
	request for redoing	18	10.3		
	clinic management for hair treatment	13	7.4		
	etc	21	12.0		

있다.

응답자들이 최초로 염색을 시작한 시기는 '대학생' 시절이 44.4%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퍼머넌트를 처음 시작한 평균 시기인 '초등학교'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36.6%는 '기분 전환을 위해' 염색을 하고 31.6%는 '세련되게 보이고 싶어' 염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과 퍼머넌트 모두에 있어 응답자인 여대생들은 주로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헤어에 변화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귀자(2001)의 연구에서 염색하는 이유로 '예쁘게 보이려고'가 33.7%, '새로운 마음 변화'가 28.3%로 본 연구의 '기분 전환을 위해' 36.6%, '세련되게 보이려고' 31.6%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8].

Table 9는 염색 후 경험한 불만족이나 부작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로, 염색시술 후 불만족이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170명으로 염색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64.1%에 해당한다. 광형심(1998)의 연구에서는 24.6%가

염색 후 부작용 경험을 했고, 윤복연(2001)의 연구에서는 46.9%가 염색 후 부작용 경험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작용 경험자가 64.1%로 선행연구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염색, 탈색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염색을 시도하는 이도 증가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및 불만족을 경험한 내용은 '모발손상'이 56.3%로 가장 흔히 경험하는 부작용의 내용이었으며 '색상자체 불만족'이 25.9%로 그 뒤를 이었다.

염색 후 모발색상에 대한 불만도 25.9%로, 염색 시 대다수의 여대생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에서는 시술 전 고객과 정확한 상담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면, 응답자의 62%가 '직접 트리트먼트'를 하여 본인 스스로 부작용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전문 헤어케어 샵, 클리닉 관리 등 전문 관리점을 통해 부작용을 조치하려는 응답

Table 10. Realities for Using Hair Product 1-shampoo (N=328)

Fluent	Classification	Frequency	(%)	Average	Variance
Shampoo	1 time	5	1.5	3.59	.85
	2~3 times	29	8.8		
	4~5 times	95	29.0		
	6~7 times	165	50.3		
	8 over times	34	10.4		
Type of shampoo	normal shampoo	157	47.9	2.45	1.64
	all in one (shampoo+ conditioner)	26	7.9		
	exclusive shampoo (haircoloring, perm & dandruff)	65	19.8		
	form cleansing	-	-		
	damaged hair shampoo	80	24.3		
Method of dry hair	natural dry	117	35.7	2.84	1.65
	towel dry	42	12.8		
	blow dry w/cold wind	28	8.5		
	blow dry w/warm wind	60	18.3		
	using both	81	24.7		

Table 11. Using Hair Product 2-styling, Hair Protect and etc (N=328)

Fluent				Average	Variance
Whether or not for use hair product				2.84	1.22
Hair product type using the most	wax	75 person	22.9%	3.22	2.63
	hair essence	143 persons	43.9%		
	mousse	3 persons	.9%		
	gel, lotion	42 person	12.8%		
	spray	13 person	4.0%		
	etc	5 persons	1.5%		
Use of protect hair, restoration product				2.88	1.21
Method for choice of hair product				3.13	1.71
Opinion for using hair product depend on hair type				3.97	.69

자는 매우 드물고 부작용을 발생시킨 미용실에 대해 환불 및 재시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부작용 사항에 대해 스스로 직접 트리트먼트 등을 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소극적인 대처 행태가 혼함을 알 수 있다.

3.4. 모발 화장품 사용 실태

조사대상자가 1주일에 샴푸를 하는 횟수는 '6~7회'가 전체 응답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즉 1일에 1번 주기로 샴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복연(2001)의 연구에서는 샴푸 횟수가 일주일에 '6~7회'가 58.3%, '4~5회'가 26.4%, '8회 이상'이 6.5%로 91.4%의 여대생들이 일주일에 4회 이상 샴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4회 이상이 89.7%로 비슷한 결과였다. 이렇게 자주 하는 샴푸에 있어 응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종류는 '일반샴푸'가 47.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다양하게 출시되는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샴푸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샴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외 기능에 맞는 손상모 샴푸가 뒤를 잇고 있다. 샴푸 후에는 35.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자연 건조'의 방법으로 모발을 말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모발용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평균 2.84점으로 대체로 '가끔 사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씩 사용하는 모발용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나 그 중 '헤어 에센스'가 43.9%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헤어 왁스(22.9%)', '젤, 로션(12.8%)' 등도 널리 사용되는 모발용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발보호 및 재생용 제품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평균 2.88점으로 역시 '가끔 사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발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평균 3.13점으로 '주위의 권유'를 통해 이러한 제품을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모발 화장품 선택시 정확한 사전정보를 인지하고 구입하기 보다는 주위의 권유 등을 통해 구입함으로써 관심도는 높지

Table 12. Brand Satisfaction for Shampoo

Fluent	Classification	2 Years college		4 Years college		
		Frequency	(%)	Frequency	(%)	
Brand for shampoo (repetition response)	P	36	26.6	76	31.7	
	K	20	14.8	43	17.9	
	E	34	25.1	31	12.9	
	D	16	11.8	38	15.8	
	R	1	1.2	1	0.1	
	V	7	5.1	16	6.6	
	F	0	0	2	0.8	
	DR	7	5.1	9	3.7	
	L	4	2.9	6	2.5	
	etc	10	7.4	17	7.1	
	total	135	100	239	100	
Brand satisfaction for 2 years college student						
Brand satisfaction for shampoo (repetition response)	Classification	Very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P			9(6.6)	18(13.3)	9(6.6)
	K			8(5.9)	8(5.9)	4(2.9)
	E			20(14.8)	14(10.3)	
	D		1	5(3.7)	9(6.6)	1(0.7)
	R				1(0.7)	
	V			5(3.7)	1(0.7)	1
	F					
	DR			4(2.9)	3(2.1)	
	L			2(1.4)	2(1.4)	
etc			5(3.7)	5(3.7)		
Brand satisfaction for 4 years college student						
Brand satisfaction for shampoo (repetition response)	Classification	Very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P			26(10.8)	43(17.9)	7(2.9)
	K			10(4.1)	26(10.8)	7(2.9)
	E		2	15(6.2)	14(5.8)	
	D		1	10(4.1)	24(10)	4(1.6)
	R				1(0.4)	
	V			6(2.5)	8(3.3)	2(0.8)
	F				2(0.8)	
	DR			3(1.2)	6(2.5)	
	L			2(1.2)	4(1.6)	
etc			6(2.5)	8(3.3)	3(1.2)	

만 보다 적극적인 모발 관리를 위한 행태는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발 화장품 사용에 있어 모발의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7점으로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샴푸제의 종류와 만족도를 미용계열학과 2년제와 미용계열이 아닌 4년제 학생으로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미용계열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은 여러 종류의 샴푸 브랜드 중 'P'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그 뒤를 이어 'E', 'K', 'D'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은 'P', 'K', 'D', 'E'의 순으로 샴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2년제 여학생의 경우 선호 브랜드 1위인 'P'에 대해서는 만족이 13.3%로 가장 높은 반면 선호브랜드 2위인 'E'에 있어서는 14.8%가 '보통'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브랜드 3위인 'K'는 만족도에 있어 '보통'과 '만족'이 5.9%로 각각 동일한 반면, 'D' 제품에 대해서는 9.9%가 '만족함'을 알 수 있다. 4년제 학생의 경우 'P' 제품에

Table 13. Recognition and Realities for Hair Management

Fluent				Average	Variance
Treatment after haircoloring or bleach				2.91	1.43
Treatment after permanent wave				2.83	1.22
Frequency of treatment for hair care (1month)				2.75	1.52
The extent of the necessity for hair management				4.09	.75
A place				2.41	1.12
Expense for hair management (1month)	1~3 thousand won	138 persons	42.1%	2.41	2.05
	3~5 thousand won	80 persons	24.1%		
	5~10 thousand won	65 persons	19.8%		
	10~20 thousand won	19 persons	5.8%		
	20 over thousand won	3 persons	.9%		

대해 17.9%가 'K' 제품에 대해서는 10.8%가, 'D' 제품에 대해서는 10%가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이 선호하는 브랜드 4위인 'E'는 만족보다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갖는 응답자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3.5. 모발관리 및 모발 고민 실태

조사대상자의 모발관리 실태를 알아본 결과, 먼저 염색이나 탈색 후 트리트먼트를 실시하는 정도는 평균 2.91점으로 '가끔한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퍼머먼트 후 트리트먼트를 실시하는 정도는 평균 2.83점으로 역시 응답자들 대다수는 '가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이나 탈색, 퍼머먼트와 같은 인위적인 시술 후의 트리트먼트 이외, 헤어케어를 위한 트리트먼트를 1달에 몇 회 실시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2.75점으로 한 달에 '1~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트먼트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발관리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4.09점으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모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희의 연구에서 밝힌 미용지식 태도연구에서 미용지식이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낮은 점을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 하겠다 [2]. 또한 모발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실태는 이러하나 관심도 및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는 평균 4.09점으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모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대생들의 모발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나 관리와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응답자인 여대생은 모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 대체로 자신의 모발 상태에 따라 모발 화장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발을 주로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 장소를 알아 본 결과, 평균 2.41점으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집에서 홈케어'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발관리를 위해 1달에 소요하는 비용은 '1~3

Table 14. Extend of Concern for Appearance

Need of hair management	Extend of concern for appearance			Total
	Low	Normal	High	
Never			1(0.4)	1(0.3)
Don't need		7(7.4)	3(1.3)	10(3.0)
Normal	5(55.6)	18(18.9)	20(8.9)	43(13.1)
Need	3(33.3)	54(56.8)	121(54)	178(54.4)
Necessary	1(11.1)	16(16.8)	79(35.3)	96(29.3)
Total	9(100.0)	95(100.0)	224(100.0)	328(100.0)

χ^2 -value=17.149 P-value=.029 (%)

만원'대가 42.1%로 가장 많고 '3~5만원'대가 24.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와 모발관리의 필요성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Table 14와 같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모발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 정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이거나 높은 집단은 모발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편'인 것으로 나타나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모발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낮고 따라서 모발관리의 필요성 인식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를 통해 모발관리에 대한 고민 여부 및 고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모발에 있어 85.1%는 '고민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인옥(2000)의 연구에서 모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응답자가 92.9%이고, 윤복연(2001)의 연구에서는 86.2%가 고민이 있다고 응답했다[6,9]. 그렇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큰 고민거리는 '윤기가 없고 푸석거리는 것' 때문으로 33.2%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모발이 거칠고 갈라짐', '모발이 가늘고 힘이 없음'이 그 뒤를 이어 응답자들이 모발과 관련하여 주로 고민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윤복연의 연구에서도 '윤기가 없고 푸

Table 15. Source of Worries about Hair

(N=328)

Fluent	Classification	The order of frequency	(%)	Average	Variance
Yes or no of worries about hair	yes	279	85.1	1.15	.36
	no	49	14.9		
Source of worries	not brittle and fragile	109	33.2	4.80	4.16
	coarse and spilt	50	15.2		
	spilt ends	12	3.7		
	curly hair	19	5.8		
	too much hair loss	21	6.4		
	little hair	19	5.8		
	too much hair	17	5.2		
	dandruff	7	2.1		
	alopecia areata	-	-		
	gray hair	1	.3		
	thin and weak hair	27	8.2		
	etc	46	14.0		

석거리는 것'과 '모발이 거칠고 갈라짐'의 사항이 본 연구와 똑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모발 미용관리 지식 및 행태조사 등을 통해 올바른 모발건강 유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여대생의 모발 화장품 선호도 및 시장 분석을 통해 미용산업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의 모발 미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이해 수준 및 관심도에 있어 서울, 경기도 소재한 2년제 미용계열학과 및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인 여대생들은 현재 '염색모, 탈색모' 형태(49.1%)를 하고 있거나 '퍼머넌트모' 형태(39%)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 모발에 대한 미용관련 기술에의 관심이 높고, 이를 직접 시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발 미용 관련 기술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여대생들은 자신의 현재 모발상태에 대해 평균적으로 '손상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이 1년에 행하는 모발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횟수 및 내용을 살펴보면, 컷트와 퍼머넌트, 염색은 평균 1년에 '1~2회' 정도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소 1년에 1~2회 이상의 미용기술을 실시하는 응답자들 중 염색하는데 있어 사전 패치 테스트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86.21%가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하고 염색을 하는 경우는 0.9%에 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많은 여대생들이 집에서 또는 미용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용기술을 하고 있으나 충분한

사전 지식과 유의사항을 소홀히 한 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모발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와의 관련성에 있어 연구 대상자의 모발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염색이나 탈색, 퍼머넌트 후 트리트먼트를 실시하는 정도는 '가끔한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염색이나 탈색, 퍼머넌트와 같은 인위적인 기술 후의 트리트먼트 이외, 헤어 케어를 위한 트리트먼트를 하는 경우도 한 달에 '1~2회' 정도로 비교적 모발형태 및 분위기 전환을 위한 미용기술을 자주 하는 반면에,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미용기술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모발 화장품 및 성향분석을 통해 한 시장동향에 있어 즉, 브랜드의 선호도와 제품사용 실태에 있어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모발 화장품은 먼저 염색제 브랜드에 있어 'L'로 42.7%의 응답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W', 'M', 'F'와 같은 브랜드의 염색제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염색제를 구입하는데 있어 구매자인 여대생들은 '색상(36.2%)', '품질(30.1%)', '브랜드(22.5%)'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염모제의 색상계열은 가장 무난한 '브라운계'가 48.8%로 다른 색상계열에 비해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블루계(19.8%)', '블랙계(12.2%)'가 선호되고 있으며 나머지 색상계열은 거의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여대생들이 평균 1주일에 '6~7회' 사용하는 샴푸제의 경우 기능성 샴푸보다는 '일반샴푸'가 47.9%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샴푸 브랜드는 'P'로 전체 응답자의 32.9%가 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발용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가끔 사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씩 사용하는 모발용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나 그 중 '헤어 에센스'가 43.9%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헤어 왁스(22.9%)', '젤, 로션(12.8%)' 등도 널리 사용되는 모발용 제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발보호 및 재생용 제품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평균 2.88점으로 역시 '가끔 사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발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평균 3.13점으로 메스컴이나 광고보다는 '주위의 권유'를 통해 이러한 제품을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넷째, 미용실에서 행하는 모발 염색, 탈색, 퍼머넌트 등을 통한 부작용 발생시 대처 방법 및 관리에 대한 행태에 있어서는, 여러 미용기술 가운데 먼저 퍼머넌트 후 불만족이나 부작용을 경험한 내용에 있어, 불만족이나 부작용 유형협자가 24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4.7%에 이르렀다. 응답자인 245명이 경험한 불만족의 내용은 '모발손상'이 42.4%로 가장 많았고 '스타일 불만족'이 19.8%로 그 뒤를 이고 있다. 이러한 모발 및 두피 손상, 스타일 불만족 등의 부작용에 대해 미용실에 클레임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은 8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3.1%만이 시술의 부작용이나 불만을 미용실에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족 제시에 대해 '재시술 요구'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22.4%로 가장 많았고 아예 '직접 트리트먼트 관리'를 하며 본인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형태도 18.3%에 이르렀다.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하는 조치는 1.2%로 거의 해당하는 이가 적었다.

그리고 염색시술 후 불만족이나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170명으로 염색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64.1%에 해당한다. 부작용 및 불만족을 경험한 내용은 '모발손상'이 56.3%로 가장 흔히 경험하는 부작용의 내용이었으며 '색상자체 불만족'이 25.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난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면, 응답자의 62%에 해당하는 108명은 '직접 트리트먼트'를 하여 본인 스스로 부작용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발생시킨 미용실에 대해 환불 및 재시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여대생들은 모발미용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모발미용 관리와 관련한 지식에서 충분한 정보가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다양화 되어가는 미적 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세분화된 모발 화장품과 정확한 모발 관리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모발 미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요구되어진다.

5. 결 론

여대생들이 모발미용의 유행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모발미용 관리와 관련한 지식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행태에서도 제품판매의 시장 성장률은 매년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의 올바른 모발건강 유지와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인식은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미용시술 후 부작용이나 서비스 불만에 따른 대처에서 볼 수 있듯이 적극적인 대처나 관리보다 소극적인 성향에서 보수적인 면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들의 다양한 패션 감각과 미용관심도를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모발 관리를 위한 교육이 요구되고 보다 세분화되어 가는 경향에 맞는 올바른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여대생들의 바른 모발관리와 미용행태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시술하는 염색과 퍼머넌트는 주로 미용실에서 시술하므로, 미용사들이 모발미용이나 모발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특히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기존의 기초화장품이나 색조화장품은 기업의 홍보팀 주관 하에 일반인들을 위한 여러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으나 모발 화장품이나 관리에 대한 교육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모발 화장품 회사에서도 일반인이나 여대생들을 위한 모발관리 교육과 모발 화장품의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셋째, 여대생들이 퍼머넌트나 염색 후의 부작용이나 불만족이 있을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미용실에서 클레임 관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 미용업계와 관련부처에 피해보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광형심, 여성의 모발미용에 관한 의식행태 조사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2. 최연희, 미용실 종사자들의 두발처치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요인분석, 보건복지연구 제4호, 보건복지연구소 (1999).
3. 이영미, 미용과 학생들의 모발 손상 및 대책연구, 충청대논문집 제19권 (2001).
4. 김주덕 외, 신화장품학, 동화기술 (1997).
5. 김복희, 남철현, 여성의 피부미용 관리지식 및 행태와 관련요인,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5(1), (1998).

6. 윤복연 외, 모발관리 및 모발고민에 관한 연구 한국 미용학회지 (2001).
7. 김은숙, 미용학원수강생의 모발미용 의식 행태와 미용실 위생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보건복지연구 제 3호, 경상대 보건복지 연구소 (1999).
8. 최귀자, 미용실 고객의 모발에 대한 인식도 조사, 보건복지연구 제 4호, 경산대 보건복지연구소 (2000).
9. 문인옥, 조성선, 여대생의 모발건강과 질병요인과의 관련성, 한국보건통계학회지 제25권 2호 (2000).